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12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4.03(금)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선포 및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 진행 원청 책임 강화와 태경산업위원회 사수 투쟁 결의



4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 주최로 열렸으며,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자 건강권이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임을 강조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청 책임강화를 통한 산업현장 안전대책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면서 하청노동자에게 재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 책임이 원청에게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산업현장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노조법의 시행으로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이 가능해진 만큼, 노동조건과 안전문제를 원청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도 거론되었다. 원청교섭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가 일터에

서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히고,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이날 오후 2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탄압 분쇄! 태경산업지회 사수!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금속노조 경주지부를 비롯한 금속노조 영남권 지부들이 참석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현재 태경산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단체협약 개악 시도, 단협 해지 강행, 손해배상 청구와 해고위협 등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조합활동을 제한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개악안이 제시되면서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장세은 대구지부장은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단식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태경산업 투쟁은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투쟁”이라며 “사측이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조직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김희정 지회장은 “노조탄압에 맞선 태경산업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현장을 지키기 위한 연대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홍 경주지부 지부장은 “금속노조는 단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끝까지 함께 싸워왔다”며 “태경산업 동지들이 외롭지 않도록 끝까지 엄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남권 지부들이 함께 힘을 모아 민주노조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태경산업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탄압 중단과 단체협약 정상화를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태경산업의 노조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조직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과 민주노조 사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으며, 원청 책임 강화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